

#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사회 개최 새 이사장에 동문회장 이대길 목사 추대

뉴욕총신대학교, 신학대학원 (총장 정익수 목사) 이사회는 10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하경빈 이사장과 윤성태 학장의 해임을 의결하고, 새 이사장에 동문회장 이대길 목사를 추대했다.

이날 이사회에는 직무이사 정익수 총장, 이사 이대길 목사, 이사 김종태 목사, 이사 한상흠 목사, 이사 권영길 목사, 감사 정대영 목사, 감사 이종수 목사가 참석했다.

하경빈 전 이사장과 윤성태 전 학장은 이사회 임시 총회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, 이사회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의결했다.

하경빈 전 이사장과 윤성태 전 학장 등은 2월 4일(화) 오후 이사회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정익수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었다. 그러나 10일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2월 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(3명)이 참석하였으



새 이사장에 선임된 이대길 목사

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, 이사회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하경빈 전 이사장과 윤성태 전 학장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.

〈기사·사진 제공=복음뉴스〉